

Interstitial pneumonia is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disease in patients with scrub typhus

Sun Wha Song*, Young Ok Kim, Young Soo Kim, Sun Ae Yoon,
Kwan Hyoung Kim, Young Mi Ku*, Ki Tae Kim*, Seok Hee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Radi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terstitial pneumonia frequently occurs in scrub typhus, but clinical significance of interstitial pneumonia is not well know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interstitial pneumonia as a marker of severity of disease in patients with scrub typhus.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stitial pneumonia and clinical parameters representing the severity of disease in 101 patients with scrub typhu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presence of interstitial pneumonia; group I (no interstitial pneumonia), group II (presence of interstitial pneumonia). And then, we compared the clinical parameters representing the severity of disease and other chest radiographic findings between the two groups. Of the total 101 patients, 49 patients (48.5%) were categorized as group I, 52 patients (51.4%) as group II. Group II had a higher rate of incidence in episode of hypoxia, hypotension, hypoalbuminemia, albumin replacement than did group I. Group II tended to have a higher rate of incidence of acute renal failure and death. Group II had a higher rate of incidence of pleural effusion, focal atelectasis, cardiomegaly, pulmonary alveolar edema, and hilar lymphadenopathy. In conclusion, our data suggest that interstitial pneumonia frequently occurs in patients with scrub typhus and its presence is associated with the disease severity of scrub typhus.

간 이식 환자에서의 결핵

김상일¹, 김양리¹, 최종영¹, 윤승규¹, 김동규², 이명덕², 강문원¹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외과학교실²

1996-2002년 사이 간 이식 환자 98명 중 결핵으로 진단된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핵균이 배양되면 proven case, 항산균도말검사 양성 혹은 조직검사상 결핵 소견을 보이면 probable case, ADA가 증가되었거나 경험적 항결핵제 투여 후 호전되면 possible case로 하였다. 이식전 probable case 1예, possible case 1예였고, 이식 후 proven case 1예, probable case 1예였다. 이식전 첫 환자는 52세 남자로 30년전 결핵성 늑막염으로 7개월간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이식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우상엽의 다발성 결절의 항산균 도말검사 양성으로 간이식 38일 전부터 INH, RFP, EMB, PZA로 치료를 시작하여 이식후까지 총 13개월간 투여하였다. 이식과 관련된 부작용 및 결핵의 재발은 없었다. 두 번째는 51세 남자로 결핵의 과거력은 없었고 이식 7일전 흉부 X선 검사상 흉막액이 관찰되었고, ADA가 123 U/L로 증가되어 INH, EMB, SM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식 후 INH, EMB, RFP, PZA로 변경하여 총 12개월간 항결핵제를 투여하였고, 이식과 관련된 문제점 및 흉막액 저류는 보이지 않았다. 이식 후 발생한 한 명은 50세 여자환자로 이식 10개월 후 야간발한 및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X선상 흉막액이 관찰되었고, 2번 3번 요추의 척추염이 관찰되었다. 흉막액의 항산균도말검사나 PCR 검사 모두 음성이었으나, ADA가 142 U/L로 증가하였다. 척추 및 추간판을 수술하면서 시행한 항산균 도말검사상 양성으로 나왔고 INH, RFP, EMB, PZA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당시 시행한 결핵 배양 검사결과 흉막액과 척추 모두에서 결핵균이 자랐으며, 모든 약제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었다. 총 12개월간 항결핵제를 투여하였고 재발이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두 번째 환자는 38세 남자로 이식 5년전 폐결핵으로 9개월간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이식 13개월 후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기관지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항산균 도말검사상 양성으로 나와 INH, RFP, EMB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1개월 후 약제부작용으로 RFP을 중지하였고, 다시 5개월간 투여 받다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X-ray에서는 활동성 결핵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이식 45개월 후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본원에서 시행한 간 이식후 결핵의 발생률은 proven case의 경우 1.0%였다. 이식전 발생한 경우는 2예로 항결핵제 치료에 잘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식후 1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동안 결핵과 연관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식후 발생한 결핵에 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증례와 추적 관찰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